

# 위탁 철화...광주시가 光산업 직접 행킨다

### 시 “광산업진흥회, 지역기업 요구 부응 못해” 지원 중단

### 전략기획팀 구성 지원 체계 변경...“재도약 기회 될 것”

광주시가 대표적 지역산업인 광(光)산업을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기로 했다.

광주시는 “가전분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융·복합을 바탕으로 광산업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지역 광산업체를 육성·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광산업진흥회(진흥회)에 매년 지원해 온 30억원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예정된 지원도 보류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민

간 기업들의 연합체로, 시는 지역 업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을 위탁하고 자금을 지원했다.

시는 진흥회를 배제함에 따라 지역 광산업 관련 유관기관과 기업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광산업전략기획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단계별 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도 가동한다.

‘광산업 전략기획팀’은 글로벌 여건에 맞춰 밀도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자동차, 에너지, 의료분야 등 지역 전략산업과

융·복합 등을 통해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된다.

시는 광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배경으로 그동안 진흥회가 효율적 기업지원이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요구에 제때 부응하지 못한 점을 꼽고 있다. 시의 재정 지원의도와 달리 광주업체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할 조짐을 보인다는 점도 작용했다.

최근 이재형 한국광산업진흥회장은 “진흥회는 전국 광산업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광주에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지원 규모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탈(脫) 광주의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진흥회 상근부회장 연임 과정에서 그간 시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왔던 것과는 달리, 투명한 과정 없이 각종 절차가 진행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산업 지원체계가 전격 변경돼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업발전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 광산업 사업자단체인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정부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광주시는 광산업전략기획팀과 함께 직접 광·융·복합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이 모이는 산단 패키지’ 전남 4곳 선정

### 고용부, 여수산단 직장어린이집 등 5개 사업 21억 지원

고용노동부의 ‘2016년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 공모 1차 심의에서 여수산단 등 전남지역 4개 산단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주거·안전·복지 등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정부 합동 공모사업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선정된 사업은 여수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비 12억2000만원), 대불산단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3억9500만원), 울손산단 산재 예방시설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4억7100만원), 구례 자연드림파크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5500만원) 등이다. 모두 5개 사업에 21억41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강효석 전남도 지역경제과장은 “글로벌 경제 악화로 산단 주력 사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지만 청년이 모이는 산단 패키지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4월 중 2차 정부합동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추가로 대불산단 근로자건강센터, 나주혁신산단 행복주택건설 사업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원(4억7100만원), 구례 자연드림파크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5500만원) 등이다. 모두 5개 사업에 21억41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강효석 전남도 지역경제과장은 “글로벌 경제 악화로 산단 주력 사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지만 청년이 모이는 산단 패키지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4월 중 2차 정부합동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추가로 대불산단 근로자건강센터, 나주혁신산단 행복주택건설 사업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 본보 김형호 기자 ‘이달의 기자상’ 수상

### 한국기자협회 ‘전파관리소 불법 감청 의혹’ 선정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제 306회(2016년 2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광주일보 사회부 김형호(사진) 기자의 ‘전파관리소 불법 감청 의혹’ 등 6편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인 광주일보 보도는 국가기관(미래부 소속)인 전파관리소가 전파 감시 업무 수행 중 특정 장비를 이용해 개인 간 주고 받는 영상 및 대화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 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첫 보도 이후 다수의 법률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불법 감청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고, 해당 보도를 접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 기자의 연속 보도를 통해 전파관리소의 관행적인 불법 감청에 제동이 걸렸고 전파관리소의 업무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 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첫 보도 이후 다수의 법률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불법 감청 의혹을 추가로

## “행정법 모르면 공무원 승진 못해”

### 전남도, 내년부터 보고서 작성 등 시험 실시

내년부터 전남도 공무원은 행정법을 잘 모르거나 보고서 작성을 제대로 못하면 사무관 승진에서 누락된다. 다만 재시험이 가능하고, 재교육 이수자는 승진 누락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연구사·지도사를 제외한 모든 6급 공무원은 사무관 승진에 앞서 행정법과 보고서 작성 시험을 봐야 한다. 행정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30분 시험 시간을 준다. 보고서작성은 120분 시험 시간을 준다.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하며,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다.

평균 60점 이상을 못 얻거나 과락으로 결정된 6급 공무원은 재시험을 치르게

나 일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6급 공무원들은 시험에 앞서 전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행정법 실무, 자치법규 실무, 정책·기획·요약보고서, 연설문 작성 등 5일 과정(총 35시간)의 역량강화 실무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이달 중 고치고, 내달부터 역량강화 실무과정을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역량강화 실무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시험)를 한다.

이 같은 제도는 전남도가 광주·전남에서는 처음 도입해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 지역혁신프로젝트 발굴 위한 토론회

### 광주전남연구원 내일

에너지 신산업, 농수산 벤처 창업 등 전남지역 유망 산업에 기반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영암 영산재 한옥호텔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를 통한 전남 일자리 활성화 워크숍’을 열고, 현안과제인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전남도와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주최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워크숍에는 전남도 및 시·군, 고용지청, 일자리 수행기관 등 일자리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의 ‘전남지역 고용동향 심층 분석’, 전남테크노파크 황재연 정책기획단장의 ‘전남도 지역산업 육성정책 방향’ 등 특강에 이어 올해 중소기업청, 고용부, 전남도 등이 일자리 주요 시책을 발표한다.

특히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주동식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이 패널로 참가해 전남의 일자리 관련 긴급 현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007년 3월 혁신도시 지정 이후 착공 9년만인 2016년 3월 최종 완료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일보 자료사진

## 빛가람혁신도시 착공 9년만에 최종 준공

### 국토부 3단계 공사 완료...기반시설 마무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착공 9년만에 최종 준공됐다. 지난 2007년 3월 혁신도시 지정 이후 10월 공사에 들어가 2016년 3월 최종 완료했으며, 허허벌판이던 부지는 광주·전남 성장·발전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 17일자로 광주·전남 공공혁신도시 개발사업 3단계 구간이 준공돼 관련 법률 규정에서 의거 공사 완료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3단계로 구

분된 빛가람혁신도시는 1단계 지난 2013년 12월 말, 2단계 2015년 3월 말, 3단계 2015년 12월 말 각각 준공했으며, 이번 공사로 모든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했다.

빛가람혁신도시 면적 736만1000㎡ 가운데 3단계는 129만5258.3㎡로, 혁신클러스터용지(25만972.9㎡), 주택건설용지(12만2.5㎡), 공원·녹지(6만4704㎡), 도로·주차장·문화시설·체육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85만9578.9㎡)로 구성됐다.

혁신도시 개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43%), 전남개발공사(33%), 광주도시공사(24%) 등이 참여했으며, 모두 1조4175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16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이 이미 이전을 마쳤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2개 기관은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이다.

지난 2월말 거주인구는 1만4312명으로, 오는 2020년까지 2만 가구 인구 5만명의 자족형 독립 신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신의 광장/즐거움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 PASTA / PIZZA /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 경매학원 금맥강좌

경매 실무 위주 단기 강좌입니다. 경매에 관심있는 분이나 컨설턴트업에 도전하려는 분은 지금 연락주세요. 경매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은 열립니다.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 완전 초보에서 실전 투자까지 1개월 완성입니다.

### 수시접수

•시간

오전반	화·목 10:00~12:00
오후반	화·목 19:00~21:00
주말반	토·일 14:00~16:00

•장소 : 장동로터리 한국토지경매 4층(지하철 문화전당역 5분)

•과목 : 실전경매(1개월 완성)

•교수진

한국토지경매연구원장 김광민 (주)Today 옥선 소장 이은진

실전경매 교수 양성희의 요람

## 한국토지경매학원

☎ 062-229-1512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 아버지 스피치 교실

---

###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합니다.

---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북 문화사업 지원 안내로물 우수하여 도입됨.